

호연지기의 장, 순자강(鶉子江) 주변 정자들

심우경* · 박혜범** · 신정자***

*심청 호 문화연구원 준비위원장 · **섬진강 정신문화원장 · ***예명원 광주지부장

I. 서론

옛 선비들은 관직에 재직 중이거나 퇴임 후에도 혈(穴) 자리에 아담한 누정을 축조하고, 주변 경관을 조망하며, 호연지기 함양을 즐겨했다. 삼천리 금수강산인 우리 국토에 뛰어난 경관처가 많지만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시각적 즐거움만 누렸던 것이 아니고, 기(氣)가 뭉쳐진 혈 자리[明堂]를 찾아 정신수양과 영성개발에 힘쓴 장소가 누정이었다.

종래 누정 연구는 주로 주변 경관을 감상하고 시를 읊으며 벗들과 교유한 장소에 중점을 두어 연구해 왔으나, 누정문화의 본질은 호연지기(浩然之氣) 함양에 있었음을 찾아보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섬진강 줄기 순자강 주변에 정자들을 건립하며 애용했던 선인들의 발자취를 사례연구를 통해 탐구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고급 정신문화와 정원문화 원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연구 대상지는 순자강 기슭의 무진정(無盡亭), 합강정(合江亭), 함허정(涵虛亭), 청계정(淸溪亭), 횡탄정(橫灘亭), 보인정(輔仁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촬영, 문헌 고찰, 탐문 등을 통해 연구하였다.

II. 본론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수기안인(修己安人)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부단히 공부하고 연마하였는데, 효율적으로 정진하기 위하여 찾은 곳이 누정이었으며, 그곳에서 호연지기를 함양하기도 했다. 조선 전기 『신증 동국여지승람(1530)』에 정자가 237개소에서 후기(1871~1899)에는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어 1,168개소로 늘어나기도 했다. 누정의 입지는 주로 강변에 배치되었는데, 눈앞에 전개되는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시를 읊고 교유를 하는 기능도 있었지만, 주 기능은 선비들의 호연지기를 효율적으로 함양하기 위해 풍수지리적 혈 자리에 해당하는 장소를 택했었는데, 주로 강변에 자리 잡았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과목인 풍수지리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청오경(靑烏經), 금낭경(錦囊經), 지리신법(地理新法), 명산론(明山論)을 4대 과목으로 공부했었는데, 중국 서진(西晉)말에서 동진(東晉)초의 학자 곽박(郭璞, 276~324)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 금낭경(錦囊經)에 언급된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의 경계에 이르면 멈춘다(氣乘風卽散 界水卽止)’라는 주장에 크게 동의한 까닭에 건물 전면에 지당이나 냇물, 강 등의 물 요소를 활용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최미정(2010)의 ‘조선 중기 향촌 유학자가 자연을 읽는 한 방법-풍수지리에 의한 <지수정가> 재조명’과 문영오(2003)의 ‘『면앙정가(俛仰亭歌)』의 풍수지리학적 접근’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모든 궁궐이나 사찰을 진입할 때 계류를 건너게 되는데, 종래 연구는 엘리야데(Eliade, M.)의 『성(聖)과 속(俗)』에서 물의 기능이 성과 속을 가르는 역할이다라는 주장을 주로 인용해 왔지만, 주 기능은 풍수계(風水溪) 역할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국내 수많은 강들이 있지만, 그간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정자와 강이 있는데, 그 중 전남 곡성군 입면 군지촌에 소재한 “구암사(龜巖祠)의 내력을 전해오는 『청송심씨(靑松沈氏) 사현실기(四賢實記)』 내용 가운데, 1799년 가을 진사 정윤길(鄭潤吉)이 기록한 당시 옥과현(玉果縣) 구암사서사(龜巖祠敍事)”에 의하면 순자강(鶉子江) 일대 십리 굽이굽이에 오곡(五曲)이 있다하여 기록에 의하면, 일곡(一曲) 호호정(皞皞亭) 이곡(二曲) 합강정(合江亭) 삼곡(三曲) 무진정(無盡亭) 사곡(四曲) 호연정(浩然亭) 오곡(五曲) 청계정(淸溪亭)이 그곳인데, 1곡 호호정, 2곡 합강정, 5곡 청계정은 정자가 파손되어 장소를 정확히 찾을 수 없고, 기록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1914년 일제통독부의 행정개편으로 남원부에 예속되어 있던 옥과현이 곡성군, 순창군, 남원시, 담양군 등으로 분할되어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의 행정명칭으로 오곡(五曲)의 위치를 살펴보면 구암사(龜巖祠)가 소재한 곡성군 입면 군지촌정사(涪池村精舍)를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일곡(一曲) 호호정(皞皞亭)은 조선 지식인 9인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백수(白水) 양응수(楊應秀 1700~1767)가 학문에 매진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고택(古宅)으로, 상류 전북 순창군 풍산면 향가리(香佳里)에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곡(二曲) 합강정(合江亭)은 임란최초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유평로(柳彭老 1564. 2. 24.~1592. 7. 9.)의 순절을 기린 곳으로 전남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合江里)에 위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위치가 불분명하다.

삼곡(三曲) 무진정(無盡亭)은 39세를 일기로 요절한 조선 중기의 대 문장가이며, 사랑의 화신이며 방랑의 저항시인 백호(白湖) 임제(林悌 1549~1587)가 시를 짓고 읊던 곳으로, 전북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에 위치하며(본래 이곳은 임제의 외가(外家)이며, 임제가 자란 곳이고, 은둔하며 시를 읊던 곳이다.), 임제는 이이·허균·양사언 등이 기기(奇氣)와 문재(文才)를 인정한 문장가이며, 이항복, 신희 등은 그를 시단의 맹주로 받들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사곡(四曲) 호연정(浩然亭)은 구암사(龜巖祠)가 있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55호이며, 청송십씨 제호정(霽湖亭), 심광형(沈光亨)이 조선 중종 30년인 1535년에 지은 군지촌정사(君池村精舍)에 속한 부속 건물로 1543년(중종 38년)에 건립한 정자이며, 심민각(沈民覺 1589~1643)이 관직에서 물러나 여생을 보낸 곳으로, 전남 곡성군 입면 군지촌에 소재한 지금의 함허정(涵虛亭)이다. 심민각(沈民覺)은 곡성 출신으로 인조(仁祖) 2년(1624) 이괄(李适)의 난(亂)에 의병(義兵)과 가동(家僮) 9백 여 명을 이끌고 창기(倡起)하여, 운봉현감 황일호(黃一皓)와 함께 왕(王)을 궁주에서 호종(扈從)하고, 안현(鞍峴) 전투에서 승전을 거두니, 왕이 그 공(功)을 포상(褒賞)하여 청안현감(淸安縣監)과 증산현감(甌山縣監)을 제수하였다.

오곡(五曲) 청계정(淸溪亭)은 청계정사(淸溪精舍)가 있던 곳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전사한 충장공(忠壯公) 양대박(梁大撲 1544~1592) 장군이 호연지기를 하던 청계동천(淸溪洞天) 중앙에 자리한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사수곡(泗水谷) 입구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는 파손되어 자리가 분명치 않다.

가슴 절절한 역사의 현장과 인물들을 하나로 이어보면, 삼진강의 지정학적 가치가 무엇이고,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간절히 지키려고 했던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의 진면목이 보인다.

III. 결론

조선의 선비들은 호연지기를 함양하기 위하여 풍수지리적 혈 자리에 정자를 짓고 부단히 정진하였으나, 누정 문화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주변 경관을 즐기며, 시를 읊고 친구들과 교류하는 측면만 부각·연구되어와 본 연구를 통해 정자 축조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1. 龜巖書院(2014) 靑松 沈氏 四賢實記 靑松 沈氏都正公派宗會 편역, 광일인쇄사.
2. 김광연(1995) 풍수지리. 대원사.
3. 김창현(2011) 곡성 순자강-산이 굽이치면 강물도 구부러지고, 광주드림. 2011. 10. 07.
4. 문영오(2003) 「俛仰亭歌」의 풍수지리학적 접근. 도교문화연구 19: 143-163.
5. 민경호 외 역, Christian Norberg-Schulz 저(2001) 場所의 魂, Genius Loci. 泰林文化社.
6. 박연근(1989) 한국의 정자. 대원사.
7. 박혜범(2010) 분얼을 돌린 '화합의 강' 순자강을 가다. 데일리안 2010. 01. 18 <박혜범의 비하인드 역사> 순자강과 삼진강편.
8. 박혜범(2014) 삼진강에 오곡(五曲)이 있다. 데일리저널 2014. 08. 05.
9. 심우경(1987) 造景에서 生態學과 風水思想의 關聯性. 한국정원학회지 6(1): 1-25.
10. 심우경(1988) 서양풍수에 관한 기초연구. 전남대 새마을연구 8: 11-32
11. 吳錫源(2008) 孟子의 浩然之氣 研究. 유교사상문화연구 34: 57-78.
12. 이은봉 옮김. M. 엘리야테 저(1998) 성과 속. 한길사.
13. 村山智順 著. 崔吉城 옮김(1990) 朝鮮의 風水. 민음사.
14. 최미정(2010) 조선 중기 향촌 유학자가 자연을 읽는 한 방법: 풍수지리에 의한 <지수정가> 재조명. 계명대학교 학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41: 43-88.
15. 허균(2009) 한국의 누와 정. 다른세상.
16. 호순신 원저. 김두규 역해(2004) 地理新法. 比峰出版社.
17. Christian Norberg-Schulz, Genius Loci, 민경호, 배응규, 임희지, 최강림 역(2001) 場所의 魂. 泰林文化社.
18.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2015)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Hollym, pp. 256-299.